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9호 (2021-04)
발행일 2021. 3. 29.
ISSN 2092-7117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 소득 변화: 가계동향조사 기준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
이주미 포용복지연구단 전문연구원

- 이번 분석에서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분기별 1인 가구의 소득 변화를 분석하고, 1인 가구 중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을 분석
- 1인 가구는 2020년 1~2분기 사이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 특히 사업소득과 재산·사적이전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하였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3분기 이후 경상 및 가처분소득이 양의 방향으로 전환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1인 가구 중 기존 위기계층에 더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40~50대 남성 1인 가구에 영향을 미침.
- 4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시의적절.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늦추어지거나 제외되는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

01. 서론

- ◆ 2020년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한국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기 침체는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
 -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는 전통적인 취약가구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 속한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에도 영향을 주어 과거와는 다른 위기계층을 만들어 냈음.¹⁾

1) 김태완. (2021).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소득변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3월.

- 한국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2000년대 들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1인 가구 구성은 노인과 청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이들 노인과 청년들은 노동시장 참여가 불안정하며,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 들어와 있음.
- ◆ 여기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이들에게 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로, 2019년 표본이 교체되면서 2019년과 2020년의 소득 및 지출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고 있음.
 - 여기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분기별로 1인 가구의 소득 변화를 분석하고,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을 밝히고, 그 지원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함.
 - 분석 방법은 먼저 소득 취약계층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을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눈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초로 소득 5분위를 구분함.
 - 일반적으로 소득분위 분석 시 개인화에 기초하여 소득 변화를 파악하지만, 여기서는 1인 가구 내 취약한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단위를 기초로 분석함. 따라서 분위 구분도 가구임을 밝히고자 함.

02.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1인 가구 소득 변화

가. 1인 가구 특성별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변화

- ◆ 먼저 새롭게 개편된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의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의 가족구조 변화를 반영하듯,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2019~2020년 사이 1인 가구는 약 30%대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인 가구가 약 26%대인 것으로 분석됨. 1인 및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표 1〉 가계동향조사 기준 가구 분포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인 가구	29.7	29.9	29.7	29.7	30.2	30.2	30.3	30.3
2인 가구	25.6	25.6	25.6	25.7	26.2	26.2	26.1	26.1
3인 가구	21.6	21.5	21.5	21.6	21.4	21.5	21.4	21.6
4인 가구 이상	23.1	23.0	23.2	23.1	22.2	22.2	22.2	22.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020년, 1~4분기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소득 변화를 보면,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분기 사이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실제 소비의 기준이 되는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
 - 특히 사업소득과 재산·사적이전소득이 연간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3분기 이후에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경상 및 가처분소득이 양의 방향으로 전환
 - 반면에 다인 가구는 2020년 2분기 이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시장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2분기 이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연간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은 2019년에 대비 양의 성장을 보임.
- 2020년 4분기를 기초로 볼 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강화된 방역조치는 필연적으로 사업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음.
 - 사업소득 감소 현상이 특히 1인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1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 1인 및 다인 가구 소득 변화(2019년 대비 2020년)

(단위: 천원, %)

1인 가구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변화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장소득	2,166	2,172	2,037	2,012	2,100	1,937	2,077	2,024	-3.0	-10.8	2.0	0.6
근로소득	1534	1,504	1,477	1,450	1,548	1,459	1,607	1,562	0.9	-3.0	8.8	7.7
사업소득	371	387	353	346	330	300	298	282	-11.1	-22.5	-15.6	-18.5
재산·사적이전	260	280	207	216	221	177	173	180	-15.0	-36.8	-16.4	-16.7
공적이전소득	201	177	225	187	198	365	257	216	-1.5	106.2	14.2	15.5
경상소득	2,367	2,349	2,263	2,199	2,297	2,302	2,334	2,240	-3.0	-2.0	3.1	1.9
가처분소득	2,137	2,129	2,044	2,002	2,093	2,103	2,100	2,034	-2.1	-1.2	2.7	1.6
다인 가구 (2인 가구 이상)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변화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장소득	2,665	2,650	2,728	2,671	2,714	2,517	2,697	2,663	1.8	-5.0	-1.1	-0.3
근로소득	1,956	1,932	1,992	1,942	1,995	1,824	1,971	1,938	2.0	-5.6	-1.1	-0.2
사업소득	525	566	574	608	544	542	568	570	3.6	-4.2	-1.0	-6.3
재산·사적이전	184	152	161	121	175	150	158	155	-4.9	-1.3	-1.9	28.1
공적이전소득	234	203	228	208	265	458	294	256	13.2	125.6	28.9	23.1
경상소득	2,899	2,853	2,956	2,879	2,979	2,975	2,991	2,918	2.8	4.3	1.2	1.4
가처분소득	2,598	2,559	2,613	2,586	2,668	2,686	2,633	2,610	2.7	5.0	0.8	0.9

주: 1) 소득별 금액은 균등화 소득(각각의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눔)을 의미
 2)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3) 2020년 2분기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 공적이전소득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020년, 1~4분기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여성 모두 2019년 대비 2020년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함.

-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남성 1인 가구의 사업소득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 1인 가구는 2020년 1~2분기 근로소득이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전반기에는 남성 1인 가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4분기에는 여성 1인 가구가 경상 및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줌.

〈표 3〉 1인 가구 내 성별 소득 변화율(2019년 대비 2020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장소득	-8.8	-16.3	1.1	5.3	4.0	-5.5	5.0	-3.9
근로소득	-10.6	-12.1	8.3	18.3	21.1	9.3	12.0	-3.7
사업소득	-8.7	-25.1	-18.7	-27.3	-16.8	-21.7	-7.9	-1.7
재산·사적이전	24.0	-37.7	-29.9	-40.1	-24.9	-34.2	-12.3	-6.9
공적이전소득	-11.6	116.6	14.9	43.2	7.1	102.4	12.3	0.8
경상소득	-8.9	-9.6	2.0	7.3	4.4	6.6	6.0	-3.3
가처분소득	-6.7	-8.4	1.2	5.9	3.0	6.6	6.1	-2.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020년, 1~4분기

◆ 1인 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만 35~64세 사이 중장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됨.

- 만 35~64세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만 50~64세는 1분기와 2분기에 근로소득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이 2분기 이후 증가하면서 경상 및 가처분소득이 양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만 50~64세는 거의 1년간, 만 35~49세는 3분기 이후에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이 연령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 1인 가구 내 연령별 소득 변화율(2019년 대비 2020년)

(단위: %)

구분	만 34세 이하				만 35~49세				만 50~64세				만 65세 이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장소득	-2.1	-0.1	8.3	4.2	0.6	-0.8	1.7	-4.5	-7.0	-29.1	0.1	-3.9	-0.9	-14.4	-1.8	36.6
근로소득	0.6	2.2	9.6	13.3	9.0	9.0	14.5	4.3	-7.5	-20.5	7.7	2.0	3.1	-9.9	15.4	59.9
사업소득	-17.7	-21.9	5.2	-44.7	-19.5	-26.5	-31.9	-25.3	5.4	-16.5	-13.3	-9.9	-3.4	-17.7	10.6	37.7
재산·사적이전	-8.4	7.3	-1.6	-16.4	-46.7	-32.3	-17.8	-59.4	-24.5	-67.3	-23.2	-24.5	-2.5	-16.8	-22.6	17.4
공적이전소득	17.1	655.8	27.6	-9.0	-9.1	296.7	8.3	24.7	7.1	151.0	8.5	12.0	-5.3	42.3	9.9	10.3
경상소득	-1.7	5.4	8.8	4.1	0.3	4.8	2.0	-3.5	-5.9	-18.7	0.9	-2.7	-2.8	9.7	3.4	24.4
가처분소득	-1.8	5.4	8.9	3.3	0.7	2.7	-0.2	-4.4	-3.6	-15.2	1.8	-2.4	-2.1	10.1	2.5	23.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020년, 1~4분기

◆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듯이 상용직과 자영업자가 2020년 1년간 지속해서 시장소득, 경상 및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시장소득은 줄어 들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이후에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1인 가구 주된 경제활동 상태별 소득 변화율(2019년 대비 2020년)

(단위: %)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실업·비경제활동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장소득	-4.1	-11.9	-0.8	-5.8	-9.0	-2.4	0.1	11.2	-11.8	-21.4	-13.7	-6.5	-11.8	-29.9	-17.2	9.0
근로소득	-4.0	-7.3	-1.5	-3.7	-2.1	-0.3	6.0	16.8	-79.0	-60.6	-0.4	-5.6	-31.8	-71.0	28.2	37.7
사업소득	-24.7	-5.4	13.5	-8.2	-55.8	-67.4	-46.2	-29.1	-11.8	-23.0	-15.1	-8.4	-14.3	-19.0	10.7	90.1
재산·사적이전	-0.8	-70.7	16.9	-50.5	-36.7	-7.2	-26.5	-13.0	16.6	27.8	19.0	49.4	-8.7	-26.9	-25.0	-4.6
공적이전소득	-12.8	294.6	0.0	15.7	43.9	155.5	-10.3	7.3	-3.3	240.5	131.4	85.3	3.6	58.3	21.7	15.8
경상소득	-4.4	-7.9	-0.8	-5.6	-6.0	10.0	-1.3	10.8	-11.5	-13.5	-7.3	-3.9	-5.6	7.0	2.3	12.3
가처분소득	-2.1	-6.2	-0.4	-5.6	-6.0	10.2	-2.1	10.4	-13.1	-13.9	-6.7	-3.5	-4.9	6.4	1.3	11.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020년, 1~4분기

나. 1인 가구 특성 비교 : 소득 5분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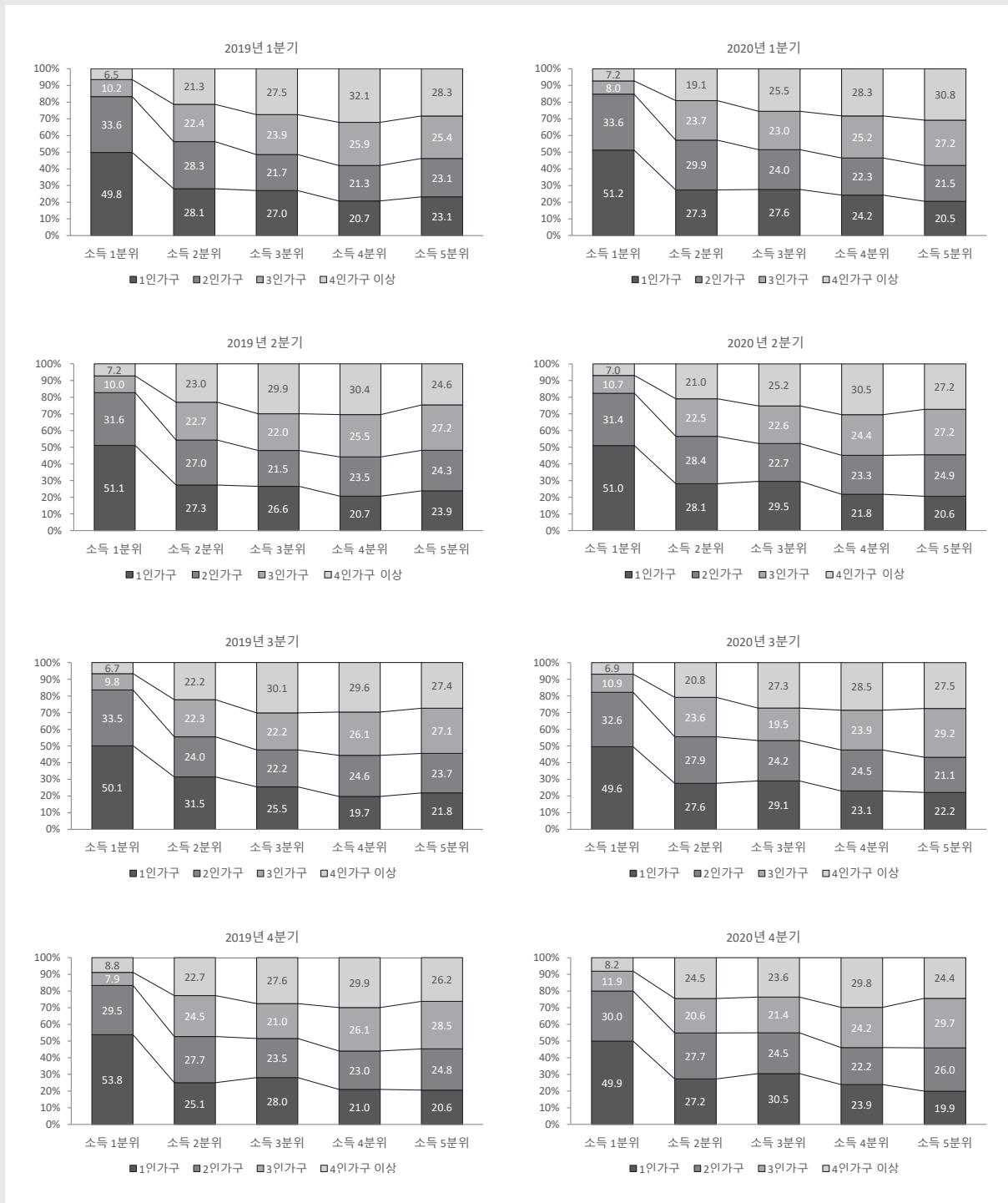
◆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분포를 보면, 1인 가구는 주로 소득이 낮은 1분위에 많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

- 2020년 1~4분기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분기에 소득 1분위에서 소폭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음. 반면에 소득 3~4분위에 속한 1인 가구 비중은 2분기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5분위에 속한 1인 가구 비중은 3분기를 제외하고는 감소

[그림 1] 소득 5분위 기준 가구원 수별 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020년, 1~4분기

◆ 코로나19로 인한 1인 가구의 소득분위별 점유율 변화를 보면, 소득 1분위가 가장 많은 30%대를 점유하고, 소득 5분위는 10% 초반대를 점유하여,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 2배 이상의 점유율 차이를 보임.

- 소득점유율 변화를 보면, 2020년 1분기에는 소득 1분위 비중이 0.5%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는 2019년 대비 감소하고 있어 다소 긍정적 현상으로 보임.
- 반면 소득 5분위는 2019년 대비 2020년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어, 코로나19가 1인 가구에 있어 고분위에 좀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표 6〉 1인 가구 소득 5분위 내 비중 변화(2019년 대비 2020년)

(단위: %, %포인트)

구분	2019년					2020년					2019년 대비 2020년 변화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1분기	33.5	18.9	18.1	14.0	15.6	34.0	18.1	18.3	16.1	13.6	0.5	-0.8	0.2	2.1	-2.0
2분기	34.2	18.2	17.8	13.8	16.0	33.7	18.6	19.6	14.4	13.6	-0.5	0.4	1.8	0.6	-2.3
3분기	33.7	21.2	17.2	13.3	14.7	32.7	18.2	19.2	15.2	14.6	-1.0	-2.9	2.0	2.0	-0.1
4분기	36.2	16.9	18.9	14.2	13.8	33.0	18.0	20.1	15.8	13.2	-3.3	1.1	1.2	1.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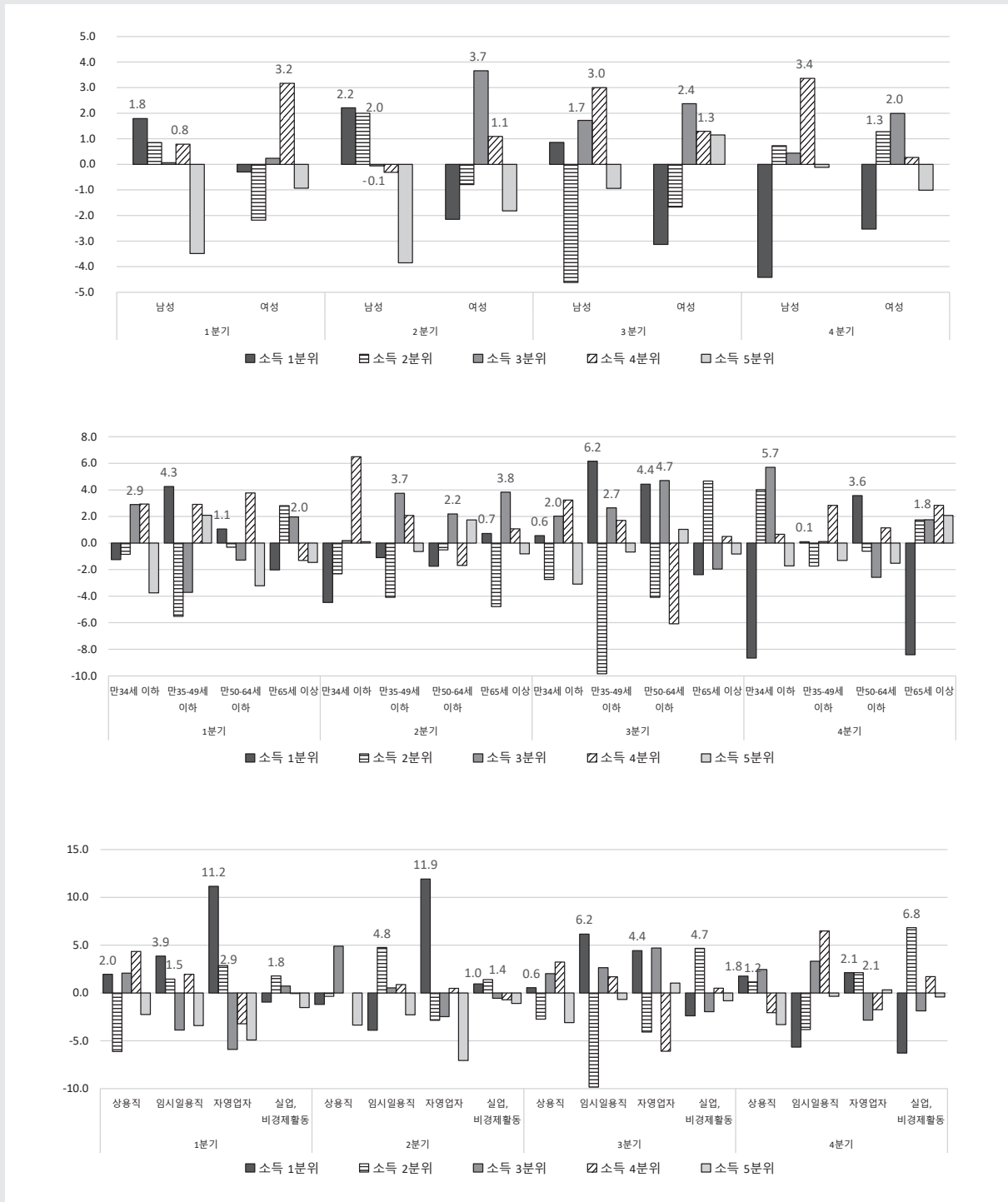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020년, 1~4분기

◆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소득 5분위 내 비중 변화(2019년 대비 2020년)를 보면,

- 남성 1인 가구는 소득 1~2분위에서 2020년 상반기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0년 하반기에는 감소.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2~4분위를 중심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연령별로는 2020년 1분기와 3분기에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만 35~64세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 4분기에도 만 50~64세는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임.
 - 반면 만 3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소득 1분위 점유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전체 소득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1인 가구의 경우 중장년 세대가 코로나19의 경기 부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로 소득 5분위 내 점유율 변화를 보면, 2020년 1~4분기까지 자영업 종사자의 소득 1분위 내 점유율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다른 주된 경제활동 상태가 분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1분위 점유율은 2020년 1분기와 3분기에는 늘어났지만, 4분기에는 다시 감소하여 계절적 영향이 다소 나타나고 있음(1분기 동절기, 3분기 여름휴가 기간 등)

[그림 2] 1인 가구 특성별 소득 5분위 내 비중 변화(2019년 대비 2020년)

(단위: %포인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020년, 1~4분기

03. 마무리

- ◆ 2020년 연간 소득 변화를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 및 사적이전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3분기 이후에는 소득이 양의 방향으로 전환
 - 1인 가구 특성별로 보면,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남성 1인 가구이면서 만 35~64세 사이 중장년층이고 주된 경제활동 분야는 상용직 혹은 자영업인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 (균등화 가처분)소득 분위별 점유율을 보면, 소득 1분위가 가장 많은 30%대를 점유하고, 소득 5분위는 10% 초반대를 점유하여,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 2배 이상의 점유율 차이를 보임.
 - 소득점유율 변화에서 소득 1분위는 2020년 1분기 비중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가 이후 분기에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는 2020년 모든 분기의 점유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코로나19가 고분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1인 가구 특성별로 보면, 남성 1인 가구는 소득 1~2분위에서 2020년 상반기 비중이 증가했다가 2020년 하반기에 감소
 - 연령별로 보면, 2020년 1분기, 3분기에 소득 1분위에서 만 35~64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
 -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로 보면, 2020년 1~4분기까지 자영업 종사자 1인 가구의 소득 1분위 내 점유율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1인 가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위기계층에 더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40~50대 1인 가구 남성들도 경기 부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의 영향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1인 가구는 소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더불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 역시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현재 정부가 지원할 예정인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약한 자영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자영업 종사자는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내 자영업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될 필요가 있음.
 - 이번 분석의 한계는 분석 자료가 현재 시점을 보여주는 횡단자료여서 시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변화 흐름을 분석하고 취약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음.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통계분석을 통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매우 중요함. 통계청 소득 및 지출 조사 자료의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상황임.

집필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 이주미 (포용복지연구단 전문연구원) 문의 044-287-8233